



11차시 토의·토론 수업 기초

1. 토의·토론 수업 개념 및 목적

1) 토의·토론의 개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의사를 결정할 때가 많다. 이때 의논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토의와 토론이다. 토의와 토론은 엄밀하게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토의보다는 토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토의를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토의와 토론은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의·토론’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함께 사용하는 것은 그 만큼 이 두 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서로 필요한 활동이며 권장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1) 토의란

토의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의를 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한다. 즉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토의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토론의 개념정의에도 공통적인 조건이다. 셋째는 참여자가 각자가 가진 정보와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그 정보는 다를 수도 있고, 상반된 정보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정보들은 의사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반된 정보일 때는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균형있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토론이란

토론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증과 실증을 통해 규칙

에 따라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전술한 두 가지 공통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참여자의 주장이 달라야 한다. 여기서 '주장'은 각자 또는 몇몇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이면 몇 명이 되어도 관계없다. 두 개 이상의 다른 주장이 있으면 토론이 발생한다. 토론을 찬반대립토론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찬반대립토론은 주장이 찬성과 반대 둘 밖에 없을 때 하는 방식이다. 주장이 셋, 넷, 다섯 또는 그 이상이라도 주장(결론)이 다르다면 토론이 발생한다. 둘째 각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논증이다. 즉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실증이다. 실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논증과 실증이 타당해야 주장(결론)이 정당화된다.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태도, 증거의 축소나 확대, 은폐나 왜곡이 있는지 드러난다. 이들을 포함한 논리적 오류들을 밝혀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상생활에서 토의와 토론의 관계

실제 생활에서 토의와 토론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토론하다가 토의를 하기도 하며, 토의하다가 토론이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점심을 무엇으로 먹을지 토의할 수 있다. 합의가 되어 중화요리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장면'을 주문할 것인지 '짬뽕'을 주문할 것인지 결정할 때, 의견이 불일치되어 서로 자장면과 짬뽕을 먹자고 주장하면 토론이 일어난다. 특정 음식이 낫다고 주장할 이유가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근거에 대해 반박도 할 것이다. 그런데 각자가 따로 시켜 서로 나누어먹자고 합의가 된다면 이는 제 3의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한 형태이므로 토의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토의·토론수업의 목적

(1) 토의·토론의 목적

토의와 토론을 사용하는 목적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대안을 찾아내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으로 해결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토의와 토론은 훈련 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야 하는데, 서로 윈윈(win-win)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토의·토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과 건전한 도덕성을 가진 지도자가 대신 의사결정을 하고 이끌어간다면 매우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이 신이 아닌 이상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는 더욱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래서 복잡하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도를 갖게 되었다.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2) 토의·토론의 수업의 목적

토의·토론을 수업에 활용하는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토론을 통한 의사결정과 해결과정을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토의·토론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특정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만 활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에 목적을 두는 등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토의·토론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활동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과 절차와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간의 낭비와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토의·토론의 훈련과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표 6-1>의 예와 같이 토의·토론 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발표와 경청의 훈련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으면 토의·토론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학습자들도 진지하게 참여하게 된다.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반드시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 좋다. 알고 있는 것과 직접 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과 온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체험이다.

(3) 사회적 기능의 훈련

토의·토론을 수업에 활용할 때는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토의·토론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 기능이라고 한다. 다음은 사회적 기능의 예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표> 토의·토론을 위한 사회적 기능의 예

- 1) '제 생각에는' 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기 생각임을 분명히 하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와 같은 표현 삼가 하기)
- 2) 구체적이고 쉬운 말로 표현하기
- 3)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일치하기
- 4) '다시 말하면' 등 동일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기
- 5) '이해하셨어요?' 등 발표 뒤 피드백 받기
- 6)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려하고 전달하기
- 7) 자신의 감정도 솔직히 답아서 전달하기
- 8) 타인 언행을 비판 없이 그대로 기술하기
- 9) 상대방 아이디어를 비판하더라도 사람을 비판하지 말기
- 10) 내가 이해한 대로 상대방 발표를 재 진술하기
- 11) 상대 감정 느낀 대로 진술하기
- 12) 상대방 발표를 해석한 후 그 해석에 합의를 구하기
- 13)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고 말하기
- 14) 논쟁에서 승리하기보다 최선의 결정에 주력하기
- 15) 서로 참여를 격려하기
- 16) 동조하지 않더라도 일단 경청하기
- 17) 양측을 지지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결론 내려기
- 18) 증거가 분명하면 증거에 따라 생각을 바꾸기
- 19) 타인을 설득하기보다 최선의 해답을 얻는데 주력하기
- 20) 선입관과 편견 버려서 생각의 자유를 획득하기
- 21) 아이디어가 불충분해도 기회가 오면 서슴없이 발언하기
- 22) 토의·토론이 자신에게 멀어지지 않게 하기
- 23) 아이디어 소재를 두고 싸우지 말기
- 24) 토의·토론 진전 상황을 파악하기

자료: 정문성(2006).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p. 99.

2. 토의·토론 수업의 준비

1) 모둠의 조직

토의·토론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보다 소규모 집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우선 교사는 모둠을 조직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1) 임의로 만듦

출석번호라든가 앉아있는 학생들의 위치라든가 교사가 임의로 모둠을 만들 수 있다. A교사는 다문화수업에서 미리 종이컵과 몇 가지 종류의 음료수를 준비해놓고, 학생들이 오면 선호하는 음료수를 한잔 마시게 한다. 다 마신 다음엔 종이컵을 뒤집어 보라고 하고, 종이컵 밑바닥에 사전에 써놓은 숫자를 확인하고 모둠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음료수가 다르다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취향을 가진 학생들이 모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모둠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아이디어가 좋은 모둠 조직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의 조직이 위험한 것은 우연히도 최악의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모둠을 다시 조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

모둠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법도 있다. 이때 학생들은 다소 당황하게 된다. 선호하는 친구가 누군지 드러나게 되고,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한다. 소외되는 학생들도 나오기 마련이고, 사춘기 학생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친한 학생들이 모이면 활동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항상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는 지적, 정서적 새로운 자극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토의·토론의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공평하기는 한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3) 교사가 모둠을 구성함

교사가 모둠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교육을 위해서는 옳다. 수업전문가로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목적에 부합하는 모둠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 성별, 성격, 문제아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최대한 원만하게 토의·토론이 진행되도록 모둠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질적으로 구성해야 학생들이 새로운 지적, 정서적 자극을 받게 되고, 따라서 토의·토론이 아니었다면 기대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토의·토론이 얼마나 훌륭한 방법인지 인식하게 된다.

2) 지위와 역할의 부여

모둠을 만든 다음에는 토의·토론을 모둠구성원에게 위임해야 하는데, 이때 교사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수업은 학생들의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된다. 교사가 의도하는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둠을 조직화해서 교사의 통제 하에 학생들끼리 열띤 토의·토론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위와 역할의 부여이다. 지위를 부여하고, 각 지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만약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면 4개의 지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끄는 토의·토론의 사회를 보고, 기록하는 토의·토론 활동을 기록하고, 부름이는 토의·토론 활동에 필요한 학습지 등 심부름을 하고, 칭찬이는 모둠원을 격려하는 등 쉽고 분명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면 토의·토론이 훨씬 흥미로워진다. 자연스럽게 모둠원 모두가 참여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시로 각 지위를 가진 학생들을 호명하고 지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위에 따른 역할정체성과 역할리더십을 훈련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학습지를 부름이가 가져가게 하면서, ‘부름이가 없다면 토의·토론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멘트를 하는 식이다. 그래야 부름이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동시에 다른 학생들도 모둠원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토의·토론이 진행될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의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게 된다.

이외에도 <표>와 같이 학생들의 재능, 기질, 성격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항상 부정적인 학생에게는 비판이의 지위를 부여하고 비판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 마음 놓고 비판하게 하면 그러한 행위가 토의·토론의 결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비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그 학생은 자신의 비판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표> 지위와 역할의 사례

역할	행동
발표지킴이 (Voice Monitor)	조용한 목소리로 토론하도록 책임진다.
동작지킴이 (Noise Monitor)	조용히 움직이도록 책임진다.
차례지킴이 (Turn-Taking Monitor)	차례로 활동하도록 책임진다.
설명이 (Explainer)	설명을 담당한다.
기록이 (Recorder)	모둠 활동의 기록을 담당한다.
세우미 (Encourager)	참여를 격려한다.
관찰이 (Observer)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하여 지적해 준다.
이끄미 (Direction Giver)	모둠의 과제, 시간, 목적 등을 재확인시켜주고 지적한다.
도우미 (Support Giver)	활동을 도와주고, 칭찬해준다.
명석이 (Clarifier)	발표를 재정리해 준다.
요약이 (Summarizer)	모둠의 결과물을 요약한다.
바로잡음이 (Accuracy Coach)	모둠의 활동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
점검이 (Checker of Understand)	구성원 모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한다.
연구미 (Reacher/ Runner)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과제와 관련시킨다.
정교미 (Elaborator)	이미 배운 것을 새롭게 완성한 과제와 관련시킨다.
창조미 (Generator)	모둠이 만든 결과물을 새롭게 재 창조한다.
비판이 (Criticizer of Idea)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이 (Seeker of Justification)	아이디어에 증거를 제시하는 등 주장의 정당화를 도와준다.
다름이 (Differentiator)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차이를 비교해 준다.
확산이 (Extender)	발표자의 의견에 좀 더 많은 정보와 의미를 보태어 준다.
선택이 (Options Generator)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낸다.
탐구미 (Prober)	주장된 의견을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한다.
융합이 (Integrator)	여러 발표자의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한다.

자료: 정문성(2016). 토의토론수업 84. 서울: 교육과학사

3) 모둠의 규모

다수 집단이 토의·토론을 하기는 어렵다. 모든 학생에게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고, 거리가 있어 경청하기도 힘들다. 너무 산만해서 토의·토론의 초점이 모여지기도 힘들다. 물론 배심(panel)토의·토론처럼 간접적인 토의·토론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쉽게 토의·토론에 참여하도록 소규모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보통 모둠은 6명

이하가 적절하다. 7명이 넘어가면 통제가 힘들어서 소외되거나 무임승차하거나 방해하는 학생이 나오게 된다. <표>는 사회심리학에서 연구한 바, 소 모둠 규모에 대한 특성이다. 두 명은 가능하면 수업중간에 잠깐 서로 묻고 답하는 정도의 5분 이내 토의·토론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짝을 잘못 만나거나 짝이 없을 때 학생들이 토의·토론에 참여하기 힘들다. 세 명은 갈등이 잘 생긴다. 두 명이 친해지고, 나머지 한 명이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네 명은 수업 중에 토의·토론하기에는 편하다. 자리 배치가 좋고, 다양한 방식의 토의·토론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을 할 때 짝수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다섯 명은 사회심리학에서는 최적의 소 모둠 규모로 알려져 있다. 충분히 다양하고, 홀수라서 의사결정이 잘 되기 때문이다. 6명은 다소 많지만 소 모둠의 특징은 살릴 수 있다.

<표>모둠의 규모에 따른 특징

규모	특징
2명	100% 참여가능하나, 짝의 영향력이 큼
3명	두 명이 친해지고 한 명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4명	짝 활동도 가능하고, 자리 배치가 편함, 그러나 2:2로 의사결정이 어려움
5명	충분히 다양하고, 홀수라서 의사결정이 잘됨, 자리 배치가 불편함
6명	다소 많으나 소 모둠의 특징은 살아있음

자료: 정문성(2008).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3. 토의·토론 수업의 종류

토의·토론 수업의 종류는 매우 많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토의·토론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	방법
모둠 세우기	기질과 성격(TCI), 다중지능(multi intelligence), 비빔밥, 사물염탐, 생활사, 스누프(snoop), 인사이드아웃(inside out), 진진가(TTF), 창문 만들기 등
아이디어 개발	나인 윈도우(9 windows), 용감한 질문법(BRAVELY-Q), 텍스트 질문으로 읽기(Q-TARC), 결부법(synectics), 기회의 원(circle of opportunity), 둘 가고 둘 남기, 디즈니 창의성 전략(DCS), 라디오 극장(radio theater), 라운드 로빙(round robin), 만다라트(mandala-art), 모둠 문장 만들기(team sentences), 반전법(reversal), 버즈(buzz),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속성열거법(attributes listing), 스캅퍼(SCAMPER), 육색생각모자(6 hats) 등
학습과 발표	가치수직선(value continuum), 영화 감상, 모둠 인터뷰(group interview), 배심(panel), 사다리(laddering), 사모아(samoan circle), 수레바퀴(carousel), 시뮬레이션(simulation), 신문 활용 교육(NIE), 신호등, 어항(fish bowl), 역할놀이(role play), 직소우(jigsaw), 짝 토의(harvruta), 타블로(tableau), 플레이스 메이트(place mate), 회전목마(carrousel), KT 분석 등
쟁점 분석	왜·왜-어떻게·어떻게(why-why how-how), 가지치기(branch), 가치명료화(value clarification), 가치분석(value analysis), 구름(cloud),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법리모형(jurisprudential approach), 생선뼈(fish bone), 스와트(SWOT), 찬반대립토론(debate), 프로-콘(pro-con), 평가·토의·평가(EDS) 등
협력적 문제해결	만장일치(unanimity), 복수선택 질적 의사결정, 쌍 비교 분석(PCA), 집단탐구(GI), 에피소우드(episode), 역장분석(force field), 창의적 문제해결(CPS), 피라미드(pyramid), 좋은점·나쁜점·흥미로운점(PMI) 등
토론 시합과 논리력	링컨-더글라스(Lincoln-Douglas) 토론, 전국 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토론대회, 세다(CEDA), 의회식 토론(parliamentary debate), 칼포퍼(Karl Popper) 토론, 툴민(Toulmin) 토론 등
프로젝트와 문제해결	토마스-킬만 갈등 해결 모형, 목표 나무(target tree), 문제 중심 학습(PBL), 설계중심학습(DBL), 탐구공동체(communitiy of inquiry), 미래 문제 해결 프로그램(FPSP), 등
이미지 활용 의사소통	다트(DARTs), 미디어 활용 교육(MIE), 개념도(concept map),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추론 레이어(layers of inference), 카드 뉴스(card news) 등